



1일 오전 7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금당산 정상에 찾은 시민들이 2024년 갑진년에 새로이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갑진년 첫 해 보자” 광주·전남 해맞이 명소 구름 인파

광주 무등산·금당산·해남 땅끝마을 등 수 천명 발길 떡국 나눔·소원 향초 켜기·드론 축하비행 등 행사도

1일 오전 7시 40분께 올해 첫 해가 떠오르자 광주시 남구 금당산 정상(해발 300m)을 찾은 지역민들은 저마다 새해소원을 빌었다.

새벽 추운 날씨에 중무장을 하고 산을 오른 지역민들은 해가 뜨자 상기된 얼굴로 새해를 밝히는 해를 휴대전화에 담았다.

같은 시간 무등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도 옆 사람과 덕담을 나누고 가족과 지인에게 전화하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발길이 해맞이 명소로 몰렸다.

무등산 국립공원공단은 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무등산에 3360여명의 등산객이 찾아와 해맞이 행사를 즐겼다고 밝혔다.

영암 월출산에는 321명, 지리산에는 1360명이 몰려들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도 470명이 찾아와 2024년 첫 해를 맞이했다.

해남군 땅끝마을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출시간이 다가오자 관광객들은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고 새해맞이를 했지만, 짙은 구름 때문에 새해 일출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비친 해를 보고 저마다 소망

을 빌었다.

새해를 맞아 지자체가 마련한 해맞이 행사에도 인파가 몰렸다.

광주시 동구 자원봉사센터는 이날 오전 7시 무등산 너릿재 정상(체육쉼터) 일대에서 새해 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다. 동구에 따르면 주최측 추산 3000여명이 참여해 미리 준비했던 2000인분의 떡국이 모두 소진돼 떡국 재료를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는 공연과 새해 떡국 나눔, 시민들의 소원을 기원하는 소원 향초 켜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서구는 서구새마을회와 함께 금당산에서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으며, 금당산 또한 2000여명이 찾아와 떡국을 나눠먹었다.

남구는 1일 월산동 월산근린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고 드론 축하비행, 새해 희망 메시지를 담은 소망나무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 이후에는 월산근린공원 일대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에서 남구 새마을회가 준비한 떡국 및 차 나눔 행사를 했다.

북구 또한 운암산, 패곡산, 한새봉 삼각산, 군왕봉, 무등산 등에서 해맞이 인파에게 떡국과 음료를

나눴으며, 광산구는 산정동 광주여대 주차장에서 어르신 해맞이객을 위한 떡국 나눔 및 새해 소망기원 카드 쓰기 등 활동을 했다.

김순권(58) 동구자원봉사센터장은 “올해 동구민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면 좋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많이 회복되는, 정상화되는 한 해 됐으면 좋겠다”며 “갑수록 세대, 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지니, 어려운 사람들 집중적으로 지원해 공동체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해 일출을 보러 온 양혜정(여·48)씨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 올해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고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한편, 해돋이 산행을 하다 발목을 다치는 등 사고도 잇따랐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북구 무등산 중머리재 등에서 총 7건의 산악사고 신고가 이어졌다. 대부분 머리가 아프다, 발목을 접질렀다는 등 경증 환자로 분류돼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하산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에서도 해맞이 명소를 찾은 시민들 7명이 119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았다. 낙상사고나 떡국을 먹다 급체하는 등 사고가 났으며, 이 중 2명은 담양 병풍산, 1명은 지리산에서 산행 도중 부상을 입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하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온화한 첫 주...3일 비·눈

2024년을 시작하는 광주·전남의 새해 첫 주는 비교적 따스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남해 쪽에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3일 새벽부터 오전 9시 사이에 광주·전남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일 광주·전남은 아침최저기온 1-4도, 낮 최고기온 7-10도로 평년(아침최저기온 영하 5.8-0도, 낮 최고기온 4.3-7.7도)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3일 또한 아침최저기온 1-4도,

낮 최고기온 7-10도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포근한 날씨는 오는 6일까지 지속되다가 주말인 7일부터 아침최저기온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4도로 떨어져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 자체는 평년을 웃돌더라도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비가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다”며 “도로 살얼음(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등)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시교육청, 신창동에 신청사 이전 추진

2028년 완공 목표 타당성 조사 등 진행키로...국비 마련 관건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광산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청사 이전 대상지를 광산구 신창동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 건물 완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중앙투자심사·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 확정된 청사는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이 입주하며 주차장 부족으로 활용률이 떨어졌던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의 대강당도 학생·학부모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청사가 들어설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는 연

면적 2만8143㎡이다. 시교육청은 사업비 1222억 5500만원을 들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청사건물을 신축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청사 전환배치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이달 말께 나오면 공청회·시민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이어 오는 3월께 청사 전환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전환배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5월께 자체·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설계공모 등을 진행한 뒤 신청사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체투자심사는 통과하더라도 중앙심사에서 보류·보완 판정을 받으면 신청사 계획은 2029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가 지원 예산을 줄이고 있어 신청사 건립 비용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건립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투자심사까지 통과되면 국비 300억원과 자체예산 920억원을 확보해 신청사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건물은 1988년 지어진 노후건물로 지난 2021년 실시된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 청사이전에는 지난 2011년부터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상무소각장, 옛 경찰청, 중앙공원 등으로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개관

사단법인 광주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사진)가 2일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에서 개관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북구가 직영해온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한 전문기관이다.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도시라는 북구의 가치에 맞춰 각 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구의 법인 설립 출원 동의서를 얻어 시범운영을 거쳤다.

문인 북구청장은 “명실상부하게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가 개소했다”면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주민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관식에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조오섭 국회의원, 이형석 국회의원 등 내·외인사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한다. /김다인 기자 kdi@

폐지 주워 판 돈·쌀·동전... 이웃 돕는 이웃들

2024년 새해 첫날부터 폐지를 주워 모은 30여 만원을 기부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1일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나삼오(88) 할머니가 광산구 산하 비영리 복지법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32만원을 전달했다. 1년 동안 폐지를 모아 마련한 성금이다.

도산동 주민 김연화씨도 현금 10만원을 같은 재단에 기부했다.

송정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라면 278개를 모아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보내오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주민이 최근 5만원어치 동전과 1만원권 지폐 3장 등 8만원의 현금을 전달했고, 또 다른 익명의 기부자가 쌀 20포대(20kg)를 도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냈다. /김다인 기자 kdi@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원장 허 정 외 임직원일동

진료내용
산부인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건강검진센터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암로 170번길 10(두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